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72. 첫째 천사의 외침

2014. 05. 1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에 나타난 144000명에 대하여 그들이 있는 장소와 그들의 성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중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특성부터 차례로 살피면서 시간이 허락하면 첫째 천사의 외침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4~7]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 지난 시간에 144000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열매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라고 했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뜻이지요?

답: 어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 다시 상기하면 이 “사람 가운데”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144000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144000인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인 맞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7장에는 이 144000인이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 가운데서”라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첫 열매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중에 오늘 설명하기로 했지요. 지난 시간에 첫 열매가 부활과 관계되는 것일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고전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4000인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으니, 이 144000인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첫 번으로 부활하는 무리들을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느냐고 물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답: 그랬지요.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예, 첫째 부활보다 먼저 부활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목사님도 이미 다 아시는 일이지만 애청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질문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보다 먼저 있는 부활이 특별부활입니다. 특별 부활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 12장에 있습니다. 이미 공부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읽어 보지요.

[단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많이” 깨어난다고 했으니 전체의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부활하는데, 한 무리는 영생을 얻었고, 한 무리는 수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부활도 둘째 부활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도 아니고 둘째 부활도 아닌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는 다음에 천년 후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욕을 받을 사람과 영생 얻은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도 아니고 둘째 부활도 아니니까 특별부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생 얻은 사람도 있고 무궁히 수욕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첫 열매라고 할 수는 없고 영생 얻는 사람들만 첫 열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궁한 수치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사람은 바로 이 특별부활에 참여하는 의인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3.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그런 이해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려운 구절이 아니군요. 다음 구절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품성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도덕적 품성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13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3: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환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들이 그렇다고 했지요. 이 144000인은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습 3:13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인데, 흠이 없다는 말은 “아모모스”인데,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뜻은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무심히 사용하는 거짓말보다는 더 심각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말합시다.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22: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못에는 거짓선지자도 있습니다.(계20:10)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선지자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4.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감히 주장합니까? 성경에 그런 주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답: 예, 성경에 보면 몇 가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된 구절도 있고 사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지요.

[요일1: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일2: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

[요일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과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일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 다음 말씀들도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할 수 없도록 잘 가르쳐줍니다.

또 생각할 것은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영혼불멸설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뱀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주장에 전혀 물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한 구절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고, 흠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모두 어린양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5. 저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 정말 거짓말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차원 높은 이야기 내용인 것을 알겠습니다.

답: 고맙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거짓말하지 않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44000인에 대하여 한 말은 그보다 더 복음적 구속적 성경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이 동의하시니 고맙습니다.(저는 들을 때에 맞추나 하는 생각이 당장 드는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한 진리에 대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시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여 세심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144000명은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과 이해를 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깨닫고 자기의 사상으로 삼아서 거짓 삼위일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 받으려고 하는 그 세력과 조직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라고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승리를 시온 산에 어린양과 함께 서 있는 장면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6.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144000인이 증거해야 할 기별이 된다고 한 천사들의 외침에 대하여 공부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둘째, 셋째 이렇게 부른 것을 보니까 처음 천사는 첫째 천사가 분명하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첫째 천사의 외치는 기별 곧 메시지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메시지라고 하지요. Three Angels Message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사전에 찾아보니 우리말로는 “전갈, 전하는 말, 전언.”이라고 풀이했네요. 메시지라는 항목으로 국어사전도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경고하기 위한 전언”이라고 했군요. “소식”이라고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기별이라는 말은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요. 그러나 기별은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하던 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승정원은 승

자들이 일하는 부처인데 요즘 표현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결정한 사실을 승지가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것이 기별입니다. 그런 뜻으로 세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기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별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7. 예, 기별이라는 말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네요. 참 좋은 표현이군요. 여기 천사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천사를 뜻하는 것인가요?

답: 일차적으로 그 천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 기별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천사가 직접 전한다면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이 기별을 위탁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칭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이어 앙겔로스는 천사도 되지만 사자도 됩니다. 즉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천사와 사람을 동일시한 표현도 있습니다.

[계21: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고 하여 사람과 천사가 같은 일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천사들이 척량한 것이 영적 세계의 특수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로 재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표현하는 말이지만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외침도 사람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기별인데, 천사들이 그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날아간다는 표현은 천사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천사로 표현된 것은 그 기별이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그의 사자들을 직접 시켜서 전하는 기별이라는 뜻이지요. 이 천사로 표상된 사람들이 바로 144000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1절을 말할 때에 설명했지요. 12:17에 바다모래 위에 서 있는 용과 대치하는 모습이라고 했지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주는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자는 땅에 사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듯한 말이지요. 계13:8과 12~16을 대조해보면 비슷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13:14~16]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미 13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전하는 대상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

들이 대상입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전하는 대상과 짐승의 표를 받도록 전하는 대상이 동일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13장은 짐승의 세력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사실을 게시해준 것이고, 14장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사실을 게시해 준 것입니다.

8. 예, 설명을 들으니 정말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13장은 13장대로 생각하고 14장은 14장대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용과 어린양의 대치 장면이 확실하네요. 13장의 용의 세력은 권력과 위협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14장에는 사건의 실상을 자세히 알려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권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라고 권하는군요.

답: 예,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13장에서 짐승과 용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지요. 즉 전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경배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짐승에게 경배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14장을 읽고 연구할 때에 이것이 용과 어린양의 대치 상태라는 것을 놓치면 이 계시의 본령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12장 마지막 장면부터 13장 14장은 용과 어린양의 대치라는 구도 안에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144000인은 어린양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바다짐승과 땅 짐승은 용의 편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14:1에서 결과를 먼저 가르쳐주었는데, 144000인과 어린양이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9. 알겠습니다. 그런 구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 구도를 생각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지요.

답: 예, 이제 첫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른 천사는 계시록에 지금까지 나타난 천사들과 다른 천사를 뜻하겠지요. 그런데 또 사람을 표상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지요. 막1:2이나 눅7:24에서는 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신속하게 소위 공중파가 전파되는 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아까 설명했고요,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

는 것이 중요하지요.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이를 경배하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 계시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예,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답: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 한 번만 나타납니다. 또 복음이라는 명사는 계시록에서도 이 구절에만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구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사망에 매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영원한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진리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십자가 이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것은 복음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 복음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의 첫 구절부터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십자가 이후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복음에서 거의 제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창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11. 예, 복음이 창조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군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세 천사들의 외침으로 전한 영원한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을 계시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144000인의 사명을 가진 신자들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